

지역 소식 통

정읍시, 별별꿈 재능
바우처 지원 대상자 모집

정읍시는 저소득층과 다문화·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미술·음악·컴퓨터 등 학원비를 지원하는 '별별꿈 재능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별별꿈 재능바우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배움의 기회를 넓히고 꿈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사업이다. 교과목을 제외한 미술, 음악, 컴퓨터,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원비 일부를 지원하며, 총 550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정읍에 주소를 둔 7세부터 19세까지의 저소득층(차상위 포함), 다문화 가정 및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축사 화재 발생
사전 예방 집중 홍보

부안군은 지난달 6일 겨울철 전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를 사전 점검했으며,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화재 예방 대책을 홍보했다.

최근 5년간 도내 축사 화재는 총 269건 발생하였으며, 해당 화재로 재산 피해는 161억 원에 달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화재 원인은 전기 40%, 기타 요인 32%, 부주의 27%, 기계적 요인 1% 순으로 다른 화재에 비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 비율이 높은 만큼 농가의 사전 예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축사 화재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겨울철에 노후화된 전열기구 사용, 전기 설비에 먼지 및 수분의 침투로 누전에 의한 화재, 전기 소비량이 많은 전기기구를 동시에 사용하여 과부하로 인한 발열 등으로 발생하며, 특히 돼지나 닭을 사육하는 축사에서 많은 화재가 발생하므로 축산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변화를 이끌 발걸음'

이학수 시장, 9월부터 4개월간 11회 45개소 현장 방문... 대장정 마무리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은 정읍시가 지난 4개월간 45개소의 주요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펼쳤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역 발전과 성과 창출의 발판을 다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준공 이전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기 적절한 대응을 통해 시민 삶과 직결된 사업들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주 1회씩 총 11회에 걸쳐 진행된 대장정은 스마트 농업, 도시재생, 산업단지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정읍의 변화를 이끌었다.

지난 12일에는 △최첨단 스마트팜



유리온실 △개방형 휴게소(상행) △정읍 내장산 행복장터를 방문해 지역 농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스마트팜 유리온실에서는 "스마트 농업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라며 "시설 보조사업 추진 시 일률적인 재원 분배 보다 재배면적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과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조성된 개방형 휴게소에서는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과 근로자들이 전기차 충전소와 식당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읍 내장산행복장터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위해 농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전면, 측면 두 곳에 감성적인 제목의 간판을 설치하고 시민성을 높여 방문객들에 더 많은 농산물 판매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시지역활력센터가 주관한 '2024 시군역량강화사업 성과공유회'가 최근 연지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을"

정읍시, '2024 시군역량강화사업 성과공유회' 성황리 개최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시지역활력센터가 주관한 '2024 시군역량강화사업 성과공유회'가 최근 연지아트홀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 지구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념하고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0여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마을동아리와 마을평생 학습 프로그램, 마을합창단 등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무대와 전지로 선보였다.

최초로 행북이음센터의 고고장구와 할머니가, 우쿨렐레 공연은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으며 입암면 입춘대길 복지관의 난타와 노래교실도 큰 박수를 받았다. 공연장 한편에 마련된 전

사실에서는 신태인을 행정복합센터의 도예와 원예 프로그램 작품, 칠보면 행복이음센터의 리탄공예 등 다채로운 작품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주민들로 구성된 산내 구절초 합창단과 정읍 어머니합창단의 합창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행사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공유회는 주민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값진 성과를 나누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참여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지역 주도의 농촌 지역개발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일상 회복 · 민생 안정' 행정력 집중

심덕섭 군수, 스마트정책회의... 지역 경제 군민 생활 전반 안정 대책 추진 상황 점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16일 오전 심덕섭 군수 주재로 스마트정책회의를 열고 지역 경제와 군민 생활 전반 안정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안정 대책 △건설·건축경기 현황과 대응 △취약계층 지원과 연발연시 나눔분위기 확산 △민생경제 안정망 강화를 위한 재정집행 총력 등 민생안정 주요 정책을 집중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고창군은 경제변동성 심화와 내수 침체 우려에 따른 소상공인·수출기업 등 위기업종 지원, 기업현장 지원 전담반(TF) 가동·운영, 부문별 긴급 지원대책 마련 등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건축과 관련, 건설업계와의 수주 확대 협력망(네트워크) 구축 대형사업장 공공발주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할 방침이다. 또 건축·주택 인허가 필요 행정 절차 간소화 지원 등을 통해 건축·부동산 경기 회복에도 방점을 둘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규제개혁 경진대회 개최

부안군은 지난 12일 '2024년 하반기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과제 4건(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2건)을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부안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서 규정되어 군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규제를 개선, 소상공인·기업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

는 규제혁신을 이루기 위해 실시됐다.

전 부서 규제발굴을 통해 27건의 건의과제와 3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되었고, 분야별 팀장 4명의 내부 심사를 거친 후 최종 4건의 과제가 본선에 올랐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 과제가 선정됐다.

심사 결과 여장·양식장 관리 등 사용 제한 완화를 통해 양식장형망선이 상시(24시간) 조업 가능하도록 개

선과제를 건의한 해양수산과 김태욱 주무관의 양식장 관리선 사용기준 완화를 통한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활동 보장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재무과 고승환 주무관의 '축박업 신규 등록 사업자 세무조사 유예 규정 신설, 장려상은 농업정책과 서재필 주무관의 '농어업 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및 생산자단체 지원 근거 마련', 지역경제과 김승혜 주무관의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가 선정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투자유치 시·군 평가' 우수기관 선정

고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4년 기업 투자유치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 군 단위 중에서 유일하게 투자유치 우수기관 선정의 성과를 올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매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실적 △투자유치 노력도 △우수사례 등 5개 분야 9개 지표의 평가를 바탕으로, 전북자치도 투자심의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투자유치 우수기관을 선발한다.

이번 평가 기간은 2023년7월부터 올 투자유치 우수기관을 선발한다.

이번 평가 기간은 2023년7월부터 올 투자유치 우수기관을 선발한다.

이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

창투자를 고민하던 다른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면서 명실상부 투자협약(중견기업 4곳, 투자금액 3000억원 상당) 등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앞서 고창군은 '2023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도내 군 단위에서 고창군이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규모 투자유치로 일 자리를 창출하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